

進入과 轉移空間 特性에 따른 單獨住宅 平面類型 變化 研究

- 충주시, 제천시,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Changes of Floor Plans in the Entry and Transfer Spaces of Single Detached Houses

- A Case of the City of Chungju, Checheon and Wonju -

신동규*
Shin, Dong-Ky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of floor plans in the entry and transfer spaces of single detached houses. The sample size was 185 households in Chungju, Jechon and Wonju Which are small citi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pproach and transfer spaces show various changes and those are important factors which symbolize the housing plane typology transformations of the research areas. Secondly, the approach direction to the indoor space was more adopted a front approach in 1960's and 1970's, it is a side approach in 1980's, and a back side approach in 1990's. Thirdly, as the stage of the transfer space increased, the detached house planes have been changing to the direction, the depth of space comes to be deep, spatial function to be fixed, and privacy of bed rooms to be increased.

Keywords : Housing Typology, Approach Space, Transfer Space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평면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는 중심문화 내지 지배문화의 관점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적 특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또한 도시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단독주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선도적 작품주택, 전원주택, 한옥, 공영주택과 같은 특정 형식의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이중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중부 지방 소도시의 주거문화에 지역적 특색이 존재할 것임을 전제하고, 주거문화 성격이 잘 드러나는 단독주택의 평면 구성상 변화를 진입방향 및 전이공간의 특성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1960년 이후 중부 지방 소도시의 단독주택 평면유형 변화 양상과 변화에 내재한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중부지방 소도시인 충주, 제천, 원주시 지역에서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발된 6개 사업지구를 선택하고, 이들 주거단지에 건축된 주택들 중에서 1960년 이후 건축된 185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건축 당시 허가도면(건축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실측을 통하여 도면을 확보)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조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일반계획특성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진입방향, 전이공간 및 평면유형 분석은 주인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한정한다. 이 논문에서 일반단독주택은 제도적 주택 유형 분류와 일치하도록 상업시설과 임대가구의 수용 여부에 의해 구분한다. 따라서 일반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병용단독주택, 상가병용다가

*정회원, 대원과학대학 건축환경디자인계열 조교수, 건축학박사.

구주택을 말하며, 상가병용주택의 경우 주택이 주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례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하는 것은 비교적 대지형상과 건축규모가 균일하고 건축시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주택유형 변화를 연구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건축허가도서에 의한 기록자료조사와 현장관찰조사가 병행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Chisquare 검증, 일원 분산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일반단독주택: 건축업자에 의하여 지어진 일반적 대중주택으로 도시 중층의 대중문화를 반영한 보편적 주거형식이다. 이들은 고급문화와 시대의 유행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주거문화를 하향 전달시키며, 거주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주거공간에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상품적 교환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회문화 규범과 시대상황 논리에 충실한 주거유형을 추종한 결과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하여 비교적 쉽고 다양하며, 능동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들이 처한 한계, 능력, 가족상황이 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¹⁾

2) 진입방향: 진입공간은 외부에서 내부에 이르는 과정적공간 또는 매개공간을 말하며, 주택의 사회적 성격이 잘 나타난다. 주택에서 진입공간은 도로의 위치, 건물의 배치, 주택용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대문, 정원, 담, 통로, 계단, 경사로 등의 매개공간을 경유하여 현관에 이르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진입방향은 현관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거공간 내부로 출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므로 평면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 진입방향의 구분은 좌향을 전면으로 좌우 측면 및 후면으로 분류한다.

3) 전이공간: 전이(轉移)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연결, 매개시키는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간적으로 진입공간, 중심공간과의 연결공간, 내·외부와 상호 연관된 공간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전이공간은 현관으로부터 거실, 안방, 식당, 부엌 등 주요 목적공간에 이르는 매개공간으로 복도, 홀, 계단실과 같은 통과공간은 물론, 거실, 식당, 침실 같은 목적공간도 포함한다.

4) 좌향(坐向): 주택의 정면이 바라보는 방위로 이 논문에서는 거실의 전면 창호가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주거유형 변화

주거유형은 일단의 주택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본 성격 또는 구성법칙으로, 하나의 주거유형은 그 도시나 문화권에서 무수히 반복된다. 보편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도시나 문화권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나타낸다. 또한 주거가 속한 사회집단의 요구, 열망, 가족상황의 변화를 포함한 영향 인자의 변화로 변형되고 조정되어 간다.²⁾

따라서 주거유형 연구는 변화의 영향인자와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 변화에 내재된 사회현상을 유추할 수 있음으로 주생활 변화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설계하는 기초 작업이 된다.

주택은 주택과 가족이 처한 상황, 그리고 시대에 따라 평면구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른 영향요인을 배제하고 진입방향과 전이공간의 구성이라는 틀에서 평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시대상황 논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일반단독주택의 주거공간을 일관된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적합한 도구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진입방향은 주택으로의 진·출입이 발생되므로 평면구성의 시발점이 되는 공간이며, 전이공간은 입구에서 목적공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결, 매개, 전이,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그 기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도시 일반단독주택 유형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택 평면을 형태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 최효승(1986), 임창복(1988, 2000)의 연구와 평

1) 도시 일반단독주택 혹은 대중주택의 주거문화 특성에 대하여 정준현(1993), 고인룡(1995)의 논문 참조.

2) 손세관, 도시주거의 유형적 연속성 및 변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환경과학연구, 제 4집, 1993, p.125.

면을 분절의 수에 따라 정리한 정준현(1993), 그리고 거실, 주방, 식당의 구성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한 윤정숙(1990), 이성만(1995), 이창진(2001)의 연구가 있다. 한편 윤상현(1993), 고인룡(1995), 노형래(2000)는 평면구성을 공간구문론의 위상기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대중주택의 형태적 특징이나 공간구성 상의 특징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들이다. 최근에는 작가주택이나 전통주택을 대상으로 진입, 분절, 연속, 전이와 같이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손세관(1996), 이수진(1997), 김미숙(2001)의 연구가 있다.

3. 분석내용

주거유형 분석 과정은 일반건축특성, 진입방향 및 전이공간 분석을 토대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주택 평면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며, 유형 변화를 유도한 사회제도적 요인과 변화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III. 평면유형 변화

1. 사례지역 주거환경 특성

조사 대상 지역은 우리 나라 중부 지방에 위치하여 상호 경계를 맞대고 있는 충북의 충주시, 제천시와 강원도의 원주시 지역으로 역사·지리·산업·도시규모 등 지역적으로 문화의 동질성이 높은 도농복합도시³⁾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문화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에 따른 차별적 특성보다는 통시적 평면유형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사례지역의 도시특성은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비교 항목에서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며,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보유율, 대지면적, 주택유형 분포 등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주거문화의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택보급률은 86.7%에서 91.8%로 높은 편이지만, 자가주택 소유율은 70%로 낮은 편이다. 주거유형 중

표 1. 사례지역 주거환경 특성

지역구분	사례대상 도시 ^b			비교지역 ^c			
	충주시	제천시	원주시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군	
인구밀도(인/km ²)	222	163	309	17958	1931	257	
가족 수(인/가구)	3.2	3.1	3.1	3.5	3.5	3.5	
주택 보급률(%)	90.0	91.8	86.7	67.9	78.4	106.6	
주택 소유율(%)	66.0	68.4	65.0	44.7	55.9	62.6	
대지면적(평) ^a	61.2	54.7	66.3	43.0	55.6	92.3	
건축 연면적(평) ^a	50.1	22.3	72.6	37.4	32.1	29.1	
거주기간(년) ^a	9.3	15.2	8.8	6.5	8.1	11.5	
주택 유형 (%)	단독주택	50.0	48.1	38.5	26.4	41.0	44.2
	아파트	43.8	43.1	56.9	25.1	36.6	35.4
	연립, 다세대	2.7	4.5	2.1	42.6	18.4	15.1

a: 사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임

b: 해당 도시의 2000년 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

c: 방하남외, 『한국가구의 개인의 경제활동(I)』 한국노동연구원, 1999을 기초로 다시 작성함.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주시 50%, 제천시 48.1%로 주거형태 중 가장 빈도가 높으며, 원주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56.9%의 비율을 보인다. 사례대상 지역은 비교지역에 비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0.1년으로 서울의 6.5년, 광역시의 8.1년 보다 매우 길다.

2. 일반 사항

1) 건축시기

주택의 건축시기는 주택지 조성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지는 사업 완료 후 건축이 진행되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주거지는 사업 착수 이전부터 존재해 온 주택을 포함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건축이 진행되며, 일부 주택은 재건축이 발생한 상태이다. 사례지역 주택의 건축시점은 '60년대와 '70년대 건축된 주택이 전체의 24.8%, '80년대 건축된 주택이 30.8%, '90년 이후 건축된 주택이 44.4%를 차지하며,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비율은 35.1%이다.<표 2, 3 참조>

2) 일반계획 특성

분석 대상 주택의 건축특성은 '60년대에는 단일 세대 거주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80년대 중반 이

3) '도농복합도시'는 인접한 시와 군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원활한 행정관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을 목적으로 1995년 발족한 행정구역 명칭인 동시에 도시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의 성격이 병존하는 지방소도시를 뜻한다.

표 2. 지역별 주택의 건축시기 (빈도 수)

지역별	연대별 사업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충주교현	토지구획	7	16	6(1)	2(2)	32(3)
충주알림	택지개발			18	12	30
충주금능	택지개발			0	30	30
재천화산	토지구획	6	9	18	(4)	32(4)
원주일산	토지구획		8	16	8(2)	31(2)
원주단계	택지개발			0	30	30
계		13	33	57(1)	51(3)	185(9)

()은 재건축이 발생한 주택 수임.

표 3. 사례지역 주택의 일반계획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건축연면적	50 m ² 이하	15	8.1	주택용도	단독주택	65	35.1
	51~100 m ²	52	28.1		다가구주택	44	23.8
	101~150 m ²	23	12.4		단독+상가	23	12.4
	151~200 m ²	24	13.0		다가구+상가	53	28.7
	201~250 m ²	37	20.0	계	185	100.0	
	250 m ² 이상	34	18.4	세대주거주면적	60 m ² 이하	28	15.1
계	185	100.0	61-85 m ²		57	30.1	
세대주	2	51	27.6		85-110 m ²	52	28.1
	3	47	25.4		110 m ² 이상	48	26.0
	4	44	23.8	계	185	100.0	
	침실수	5	28	15.1	건축경년	5년 이내	20
6 이상		15	8.1	6~10년		56	30.3
계		185	100.0	11~15년		36	19.5
세대주거층		1층	98	53.0		16~20년	26
	2층	56	30.3	21~25년		14	7.6
	3층	23	12.4	25~30년		15	8.1
	기타 중층	8	4.3	31년 이상	18	9.6	
계	185	100	계	185	100.0		

후 주택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면적, 침실 수, 층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가구 거주 단독주택으로 변모하였다. 주택의 연면적 평균은 175.4 m²(53.1평)이며, 세대주는 주로 1층에 거주한다.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평균 면적은 92.1 m²(27.9평), 침실 수는 3.02실이다. 주택의 건축경년은 10년 이하가 40.1%로 대부분이나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25%의 비율을 점한다.<표 3 참조>

3) 주택용도 변화

표 4. 연대별 주택용도 변화 분포

연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단독주택	10	71.4	19	63.3	29	49.2	6	7.3	64	34.6
다가구주택	3	21.4	5	16.7	17	28.8	18	22.0	43	23.2
상가단독	1	7.1	5	16.7	8	13.6	15	18.3	29	15.7
상가다가구	0	0.0	1	3.3	5	8.5	43	52.4	49	26.5
계	14	100	30	100	59	100	82	100	185	100
통계 값	$\chi^2 = 102.502^{**}$, sig. = 0.000									

**p<0.01에서 유의적임

주택용도는 '60년대에는 71.4%의 주택이 단독주택이고, 21.4%가 남는 방을 임대한 다가구주택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다가구주택(22.0%)과 상가병용 다가구주택(52.4%)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례지역 단독주택들은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상업시설의 수용과 더불어 공동주택 성격을 지닌 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표 4 참조>

3. 진입공간 유형 변화

1) 주택 배치 및 진입동선 유형

대문이 설치된 도로에서 환관 즉 주택내부 공간으로의 진입동선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문의 위치에 대한 진입동선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직선형'과 '굴절형'은 도로분리형 배치로 도로에서 가급적 주택을 멀게 위치시킨 배치유형이며, 'L자형'은 도로에 한 면을 접속하여 배치하고, 다른 측면에 공지를 남긴 절충형 배치이다. 'U자형'과 'P자형'은 주택을 도로에 붙여서 배치한 도로접속형배치로 2층 또는 3층 다가구주택에 많은 진입유형이다.

사례지역의 주택은 '80년대 전반기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도로분리형과 절충형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급속히 도로접속형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주택에 상업시설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면서 1층 상업시설로의 접근성 증대 요구와 고층화로 인한 북측 일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 접속하여 주택이 배치됨으로 도로의 후면이나 측면에 공지가 발생하고, 이 공간은 주차장이나 상업시설의 배후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내부공간은 외부공간과 단절되었으며, 도로와 근접한 주거공간은 환경적 측면에서 질적인 저하를

표 5. 도로특성에 따른 진입유형 분포(빈도)

유형	진입동선유형					현관위치				
	직선형	굴절형	L자형	U, P자형	기타	전면	측면	후면	코너	소계
6<R	18	32	31	2	1	47	31	5	1	84
6≤R<15	5	8	30	17	0	14	28	15	3	60
15≤R	2	1	20	17	1	1	26	14	0	41
계	25	41	81	36	2	62	85	34	4	185
통계값	$\chi^2 = 18.30, sig. = 0.078$					$\chi^2 = 34.61^{**}, sig. = 0.00$				

**p≤0.01에서 유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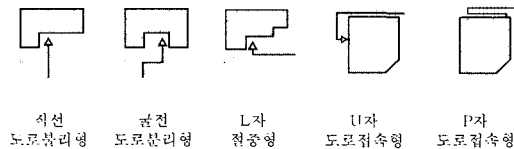


그림 1. 외부진입공간 동선유형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⁴⁾. <표 5, 그림 1 참조>

한편, 주택이 면하는 주도로의 특성에 따라 진입 동선과 현관 위치를 분석하면 <표 5>와 같이 도로 폭에 따른 진입동선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반면, 현관위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즉,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현관이 위치하며 진입동선의 유형도 '직선형', 'L형', '굴절형'이 많은 분포를 보인다. 6m 이상 15m 미만의 도로에 면한 주택은 'L형'의 진입 동선과 측면 또는 후면에 현관이 위치하는 주택의 빈도가 높다. 15m 이상 도로에 면한 주택은 대부분 상가병용주택으로 동선유형은 'U형' 또는 'P형'이며, 현관위치는 후면 또는 측면이 많이 채택된다. 이것은 폭이 좁은 주도로에 면한 주택은 도로 전면이나 측면에 현관이 위치하고 따라서 진입동선유형도 '직선'이나 'L형'이 많은 반면, 주도로의 폭이 넓어질수록 측면이나 후면으로 현관위치가 이동하며, 진입동선도 복잡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주 도로의 폭이 넓어질수록 상업시설이 많이 도입되므로 주택부분으로의 진입방향은 전면보다 측면 또는 후면이 선택됨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4) 고인룡(1995), 신동규(2002)는 주거유형 변화를 유도한 중요한 원인으로 일조건 및 주차장의 확보, 다세대주택과 다가 주택의 도입 등 제도적 요인을 지적한다.

2) 도로, 대문, 현관위치와 좌향

도로위치는 도시계획과 동시에 결정되어 주거지 구조를 형성하며, 주택의 진입방향과 대문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6>은 도로, 대문, 현관, 좌향의 방향과 도로위치에 따른 진입방향의 상호관련성을 χ^2 검증한 것이다.

주도로의 위치는 동, 서, 남측이 거의 비슷한 비율 분포로 나타나며, 단지 북측도로의 출현 빈도가 조금 낮다. 좌향의 빈도 분포는 남향이(62.8%)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북향(8.9%)은 출현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도로와 대지의 조건에 관계 없이 남측 좌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도로 위치와 좌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대문위치는 도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며,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서만 선택권이 부여된다. 분석 결과 대문위치로 동향이 가장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현관위치도 동향이 가장 많고, 서향은 적으며, 거실의 좌향과 다르게 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6 참조>

3) 진입방향 변화

진입방향은 좌향을 기준으로 한 실내공간으로의 진입 방향을 말한다. 즉 좌향의 방향이 전면이 되고, 좌우는 측면, 뒷면을 후면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입방향은 '80년 전반기까지는 전면진입이 많고, '80년 후반기는 측면진입이 많으며, '90년대에는 측면과 후면진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표 7 참조>

진입방향의 변화 원인은 전통주택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관의 수용, 겹집화, 그리고 화장실 및 욕실이 내부로 이동함에 따른 현대주택의 평면유형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80년대 후반기 이후 진입방

표 6. 도로위치에 따른 좌향, 대문, 현관위치 분포 (%)

구분	현관위치			
	도로위치	좌향분포	대문위치	현관위치
동	26.1	15.0	30.0	32.8
서	27.9	13.3	26.1	17.2
남	27.0	62.8	26.7	27.8
북	19.0	8.9	17.2	22.2
계	100.0	100.0	100.0	100.0
통계값(χ^2)	-	28.452	427.799 [◎]	78.082 [◎]
sig.	-	0.142	0.008	0.000

표 7. 연대별 진입방향 분포 (%)

연대별 유형	연대별							계
	60년	70년 전반	70년 후반	80년 전반	80년 후반	90년 전반	90년 후반	
전면현관	92.3	50.0	50.0	52.6	21.1	13.7	9.4	30.3
측면현관	0.0	50.0	37.5	42.1	65.8	51.0	50.0	48.1
후면현관	0.0	0.0	0.0	0.0	10.5	35.3	37.5	18.4
기타	7.7	0.0	12.5	5.3	2.6	0.0	3.1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 값	$\chi^2=50.705$ **, sig.=0.040							

* $p \leq 0.05$, ** $p \leq 0.01$ 에서 유의적임.

향은 주차장 및 일조권의 확보 영향, 그리고 상업시설의 수용과 다가구주택이 보편적으로 건축되면서 이들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화되어 단독주택의 평면구성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였다. 현관위치가 측면이나 후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면(주로 남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실과 안방을 현관에서 가급적 멀리 배치함으로 내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이공간의 수용과 중첩 화와 함께 기능별 공간분화가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5. 전이공간 유형 변화

1) 전이공간 유형

전이공간 유형은 외부로부터 거실, 안방, 부엌, 식당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거치는 전이공간의 단계와 공간의 종류를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부 진입과정에서 첫 번째로 거치는 내부 전이공간은 현관으로 현관이 없이 마루(4.3%), 거실(9.2%)을 통하여 직접 실내로 진입하는 경우와 현관(85.9%)을 거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제2전이공간은 '홀(42.7%)', '거실(34.6%)', 복도(20.1%)가 다수를 점하며, 제3전이공간은 '거실(60.7%)', '홀(19.6%)', '식당(12.1%)'으로 거실이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제4전이공간은 2층 이상의 주택에서 나타나며 출현 빈도가 매우 낮다.<표 8 참조>

따라서 거실은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제1전이공간 내지 제2전이공간으로 '80년 후반기 이후에는 제3전이공간으로 구성된다. '80년 후반기부터 현관의 위치가 측면과 후면으로 이동하고, 제2전이공간을 '홀'과 '복도'로 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거실의 독립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3전이공간의 역할을 거실이 부담하도록 평면이 구성되는 경우가

표 8. 전이공간 유형 분포 (%)

유형	위계	제1전이 공간		제2전이 공간		제3전이 공간		제4전이 공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마루		8	4.3	0	0.0	0	0.0	0	0.0
현관		159	85.9	0	0.0	0	0.0	0	0.0
거실		17	9.2	55	34.6	65	60.7	0	0.0
복도		0	0.0	32	20.1	2	2.0	1	10.0
홀		0	0.0	68	42.8	22	19.6	1	10.0
식당		0	0.0	3	1.8	13	12.1	4	40.0
기타		1	0.6	1	0.7	6	5.6	4	40.0
계		185	100.0	159	100.0	107	100.0	10	100.0

Chronbach's Alpha = 0.305

많아서 완전한 독립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전통 한옥에서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례지역 주택의 거실이 전이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전통주택의 마당이나 안방처럼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전통사회의 주거문화 특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전이공간의 위상기하학적 연결관계

사례주택 평면을 위상기하학의 감마 맵(Gamma Map)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거실, 부엌, 식당, 안방 등 주요공간에 도달하기까지의 '위상학적단계'와 '분기가지'를 정리하면 <표 9> 및 <그림 2>와 같다. 분석에 의하면 '60년대의 주택은 '2단계 2가지', 1970년대는 '3단계 2가지', 1980년대는 '4단계 2가지', 1990년대는 '4단계 3가지'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전이공간의 단계가 높을수록 공간의 깊이가 깊은 것을 의미하며, 분기 가지 수가 많을수록 기능별 독립

표 9. 전이공간위계 및 분기가지 (빈도)

연대별 유형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단계2가지	8	61.5	3	9.4	0	0.0	0	0.0	11	5.9
3단계2가지	3	23.1	21	65.6	14	24.6	7	8.4	45	24.3
3단계3가지	0	0.0	0	0.0	6	10.5	17	20.5	23	12.4
4단계2가지	1	7.7	5	15.6	19	33.3	22	26.5	47	25.4
4단계3가지	0	0.0	2	6.3	10	17.5	32	38.6	44	23.8
5단계3가지	0	0.0	0	0.0	6	10.5	2	2.4	8	4.3
판독불가	1	7.7	1	3.1	2	3.5	3	3.6	7	3.8
계	13	100	32	100	57	100	83	100	185	100
통계 값	$\chi^2 = 149.041$ **, sig.=0.000, **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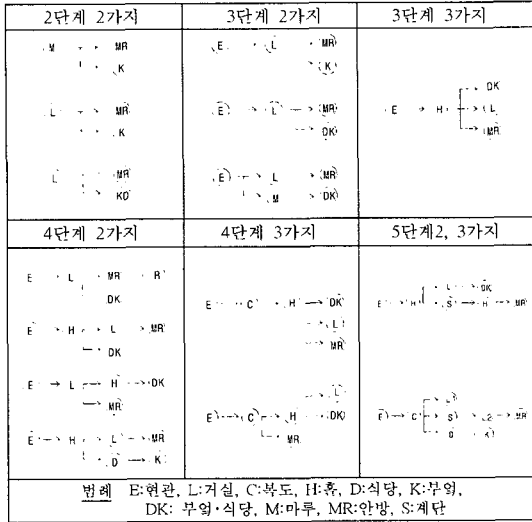


그림 2. 위상기하학적 단계와 분기가지(Gamma Map)

성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면유형 변화는 시대에 따라 전이공간의 단계와 가지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공간의 깊이가 깊어짐은 물론,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9, 그림 2 참조>

6. 연대별 평면유형 분포

주택 평면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진입공간으로 현관의 유무와 좌향을 중심으로 <표 10>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진입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전이공간으로 현관 또는 외부공간과 직접 면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는 진입공간과 맞닿은 제 1전이공간에서 거실, 부엌, 안방 등 주요생활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전이공간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정의에 의해 내부공간 진입유형을 분석한 결과 '60년대에는 전면직접마루진입(D10)과 전면현관거실진입(D20) 유형이 일반적이며, '70년대에는 전면현관거실진입(D20)과 측면현관거실진입(S20) 유형이 많다. 이들은 현관위치가 전면 혹은 측면이며, 거실을 통하여 안방과 부엌으로 진입하는 거실전이형 평면유형이다. 이러한 평면유형은 '8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다가 '80년대 후반기에는 후면진입 방식이 시도되고, 전이공간은 거실에서 복도와 홀로 변화되어 다

양한 평면유형이 실험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따라서 '80년대의 대표적 평면유형은 전반기에는 측면현관거실진입(S20) 유형이, 후반기에는 측면현관홀진입(S42) 유형이 일반적이다. '90년대에는 '80년대 후반부터 실험적으로 발생된 다양한 평면유형이 점차 정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관위치는 측면 내지 후면이며, 전이공간은 복도 또는 홀로 통합되고 측면현관홀진입(S40), 후면현관홀진입(R42) 평면유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된다.<표 10 참조>

이들 유형변화를 정리하면 '60년대는 전통주택의 홑집 형태가 겹집으로 변하는 과도기로 동선은 전면 마당에서 분기된다. '70년대와 '80년대 전반기는 전면현관으로 진입하여 거실에서 동선이 분기되며, '80년대 후반에는 완전한 겹집형태가 정착되고, 진입방향 및 전이공간의 결합형식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평면유형이 나타난다.

'90년대에는 일반단독주택의 평면유형이 정착되어 진입방향은 측면과 후면으로 전이공간은 '복도'와 '홀'로 정리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시대에 따라 주택

표 10. 진입 및 전이공간 유형변화 분포 (빈도 수)

연대별 유형*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D10	7	53.8	3	9.4	0	0.0	0	0.0	10	5.4
D20	3	23.1	10	31.3	4	7.0	0	0.0	17	9.2
F20	2	15.4	3	9.4	2	3.5	5	6.0	12	6.5
F42	0	0.0	0	0.0	7	12.3	5	6.0	12	6.5
S20	0	0.0	7	21.9	12	21.1	0	0.0	19	10.3
S25	0	0.0	4	12.5	2	3.5	1	1.2	7	3.8
S24	0	0.0	0	0.0	6	10.5	2	2.4	8	4.3
S32	0	0.0	3	9.4	2	3.5	2	2.4	7	3.8
S34	0	0.0	0	0.0	1	1.8	11	13.3	12	6.5
S40	0	0.0	0	0.0	3	5.3	16	19.3	19	10.3
S42	0	0.0	0	0.0	11	19.3	10	12.0	21	11.4
R32	0	0.0	0	0.0	2	3.5	5	6.0	7	3.8
R34	0	0.0	0	0.0	2	3.5	5	6.0	7	3.8
R42	0	0.0	0	0.0	0	0.0	19	22.9	19	10.3
기타	1	7.7	2	6.3	3	5.3	2	2.4	8	4.3
통계값	$\chi^2 = 222.701^{**}$, sig.=0.001									

**p<0.01에서 유의적임.

*유형의 정의

① 진입방향: 전면직접=D, 전면현관=F, 측면=S, 후면=R

② 제1 전이공간: 마루=10, 거실=20, 복도=30, 홀=40

③ 제2 전이공간: 마루=1, 거실=2, 복도=3, 홀=4, 기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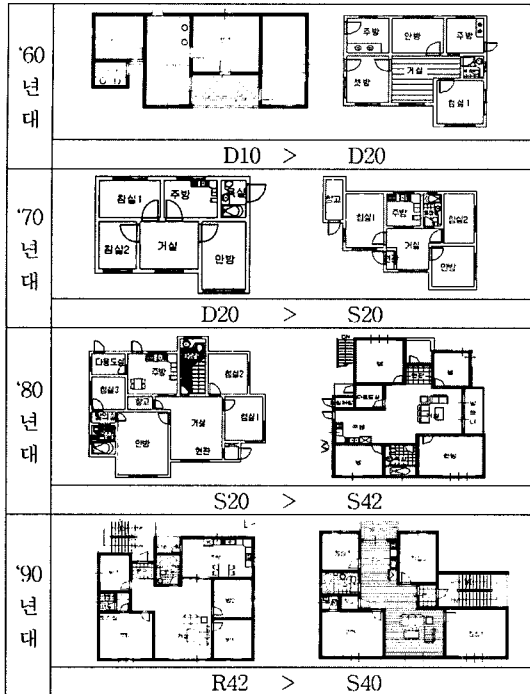


그림 3. 연대별 대표적 평면유형

의 전면 길이 방향 분절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나 전후방향 평면 폭의 분절 수는 3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정방형 평면이 일반적이다. 이들 평면유형의 대표적 형태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IV. 평면유형 변화 특성 및 요인

1. 평면유형 변화 특성

1) 현관의 도입과 진입방향의 변화

현관은 '60년대 도시단독주택의 근대화 진행과 함께 도입되어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관의 도입은 공간의 깊이와 내밀성을 증가시켰으며, 현관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전면에서 측면, 후면으로 위치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평면유형 변화를 유도하였다.

2) 진입공간의 구조화

공적장소와 사적장소의 구별에서 현대주택은 '80년대 후반을 경계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하나의 주택에 비혈연 관계에 있는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다가구주택과 상업공간이 일반적으로 수용

되면서 마당은 더 이상 외부의 공적영역과 주거 내의 사적영역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진입공간을 중심으로 공사영역이 구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있다. 이러한 외부공간에서의 사적공간의 감소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구조화된 진입공간 즉 계단실이나 복도를 활용함으로써 반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3) 전이공간의 중첩

실내공간 구성에서 현관, 복도, 홀, 거실 등 전이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중첩화되면서 공간간의 위계 질서 형성과 깊이 증가에 의한 내밀성의 확보, 기능의 고착화 현상을 가져왔으며, 주요 생활공간이 전이공간의 성격을 탈피하여 독립된 기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4) 거실의 전이공간적 성격 유지

사례지역 주택의 전이공간 유형은 '거실', 또는 '홀-거실 복합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거실이 전이공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거실이 독립된 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택의 마당의 역할 즉 동선을 매개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5) 부엌의 개방화

주택의 평면유형 분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거실, 부엌, 식당 등 가족생활공간의 구성이다. '60년대에는 부엌, 안방, 마루가 각각 분리된 형식이 일반적이며, '70년대에는 마루가 마루거실로 변화하면서 'LD+K(부엌분리형)'이 일반화되었다. '80년대 이후의 주택들은 'L+DK(거실분리형)' 또는 'LDK(개방형)'이 주도적인 평면유형으로 점차 여성공간이었던 부엌이 개방화되어 가족생활공간으로 편입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90년대에는 'LDK(개방형)'보다는 조리공간이 거실에서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L/DK(거실간접분리형)'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가사작업공간의 개방화 추세가 중형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조리공간의 직접 노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외래 주거문화가 토착문화와 절충되고 선택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5) 신동규, 건축적 적응행위에 의한 주거공간 변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67-68.

6) 공간의 의례적 구성

진입방향이 전면에서 측면과 후면으로 다양화되고 다층 구조화되면서 외부공간은 이전과 같은 형식의 정원설치나 외관의 강조와 같은 상징성과 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내부공간 구성은 여전히 진입방향에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여 거실을 위치시키고 장식을 집중함은 물론, 다른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구성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주택의 후면은 현실성을 반영하여 부엌, 수납공간, 설비위생공간 등 남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간구성에 있어 가족본위의 기능적 구성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의례적 공간구성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7) 외부공간으로의 확장

전통주택에서 주거공간은 내부와 외부가 중첩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지역의 단독주택들 또한 앞마당은 물론 측면과 후면의 공지, 발코니, 옥상슬래브 공간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외부공간을 필요에 따라 기후조절이 가능하도록 지붕이나 가작을 설치하여 매우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외부 완충공간을 확보하려는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

2. 평면유형 변화 요인

주거형태는 사회, 경제, 제도 및 규범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한다. 단독주택 평면유형변화에 영향을 끼친 문화적 요인은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통적 생활방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의한 역할증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주거공간을 가족의 생활공간이라는 전통적 사용가치 개념에서 경제적 투자대상으로 여기는 규범의 변화이다. 문화와 가족구성에 따른 규범의 변화는 부엌공간을 입식 개방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며, 가족공동 생활공간으로 편입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안방이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블록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주택의 경제적 교환가치 중시는 도시주택이 공동주택 또는 상가병용주택으로 변모하면서 임대공간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의 진보 또한 주거형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과 취사연료의 고급화,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능하게 한 전기 및 전자제품, 위생설비의 일반적 보급에 따라 난방 기능이 부엌과 분리됨으로 부엌은 연료의 보관이나 난방기능에서 해방되어 공간적으로 위치선택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결과 안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온돌방들의 위치 선택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평면이 변형되었다. 또한 생활 가전제품의 일반화는 주거공간에서 이들을 수용할 공간적 배려와 활용할 수단이 요구되면서 공간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생설비의 발달은 외부공간에 있던 화장실을 실내공간으로 편입시켰으며, 목욕문화의 보편화와 함께 실내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요인이 되었다.

제도적 영향으로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성격의 주택건축을 가능케 한 '85년 다세대주택의 도입, '90년 다가구주택의 도입, 주차장법, 일조권확보에 대한 건축법 시행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주택은 임대를 위한 수직적 규모확장과 외부공간의 주차장화 주거공간의 수직적 분화를 비롯한 공간의 변화와 경제적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증축, 개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을 종합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V. 결 론

중부지방 소도시의 일반단독주택 평면유형 변화를 진입 및 전이공간 특성에 따라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입방향은 좌향을 중심으로 전면에서 측면, 후면으로 변화하며, 전이공간은 단계와 가치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사례지역 단독주택의 평면변화 특징은 진입방향의 변화와 함께 전이공간의 다양화와 중첩이며, 이들 공간의 변화는 시대별 평면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임을 밝힐 수 있었다.

평면유형 변화의 배경은 '80년 전반기까지는 전통 주거공간이 현관 수용, 겹집화, 그리고 화장실 및 욕실의 실내 설치에 따른 현대주택의 평면유형 정착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상업시설 수용과 임대공간 증가, 생활양식의 서구화에

표 11. 사회문화 및 제도의 변화와 통시적 주거유형변화 양상

연대 구분	사회, 문화, 경제, 제도의 변화	단독주택 주거공간의 통시적 변화 양상		
		진입공간유형	전이공간유형	평면유형 변화 특징
1960년대	- 건축법 제정('62) -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 - 주택공사 설치 법('62) -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전면직접진입	마루 2단계 2가지	- 단층 1자 홑집, 2자 반겹집, 후반기에 겹집형태 - 마루 부엌 분리형(M-K) - 안방이 마루 후면에 위치하고 부엌과 직접연결 - 외부 제거식 화장실
1970년대	- 주택건설 촉진법('72) - 주택건설 10개년 계획('72-'81) - 새마을운동에 의한 주택개발 - 보일러 난방시스템 도입 - 수세식 화장실, 입식 부엌 보급	전면현관진입	거실, 마루 3단계 2가지	- 단층 2자, 田자 겹집 -현관의 일반적 수용 - M-K형, LD+K형 부엌이 거실 모서리에 위치 - 마루가 거실로 변모하여 전면 중앙에 위치 - 안방이 전면에 돌출, 현관과 대칭방향에 위치 - '70년대 후반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화
1980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84) - 다세대주택 도입('85) - 주차장법, 일조권 등 법률 시행 - 이백만호 주택 건설계획('89) - 상가병용주택의 일반화 - 취사, 난방용 연료 분리	측면현관진입	거실, 홀 3단계 2가지 4단계 2가지	- 전반기는 단층, 후반기에 2층 주택 일반화 - L+DK형, LDK형 평면형태 - 부엌이 거실 후면에 위치하고 다용도실 부가 - 다양한 유형의 주거형식과 평면형태의 실험기 - 난방과 취사연료 분리에 의한 부엌과 침실 분리 - 진입방향의 변화 및 전이공간의 증가
1990년대	- 다가구주택 허용('90) - 수도권 신도시 건설('89-'95) - 건설자재 품귀('90-'92) - IMF 경제체제('97-'2001) -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측면현관진입+ 후면현관진입	홀, 복도 4단계 3가지	- 도로 접속형 주택배치와 진입공간의 구조화 - 3층 다가구 또는 상가병용다가구주택이 보편화됨 - 계단실형 주거형태, 정사각형에 가까운 구형 평면 - L+DK, L/DK형 평면 - 전이공간의 가지 수 증가로 거실의 독립성 증가 - 부부침실의 블록화 경향

서 비롯된 것이다. 진입방향과 전이공간의 변화는 공간기능, 사용시간, 가족구성에 따른 공간 기능의 분화와 여성공간의 개방화 및 침실의 내밀성 증대와 같은 단독주택 평면구성상의 변화를 유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은 부속건물의 일반적인 건립에 의한 위요형 마당 형태, 기후조절이 가능한 외부공간으로의 확장에 대한 강한 집착, 공간의 의례적 구성, 거실의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 유지, 간접분리형 거실주방형식 등 도농복합도시로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면서 주거문화의 혼잡(混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 고 문 헌

1. 고인룡(1995),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손세관(1993), 도시주거의 유형적 연속성 및 변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환경과학연구 제4집, pp123-139.
3. 손세관·박경희(1996), 공간의 분절과 접속의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 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pp85-93.
4. 신동규(2002), 건축적 적응행위에 의한 주거공간 변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R. J. Lawrence, Housing, Dwelling and Homes, 손세욱역 (2000), 현대주거론, 대운출판.
6. 임창복·서기영(2000), 도시주거지 내 주거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pp121-129.